

# 함평군, 미래 농촌지도사의 역할 주제로 토론의 시간 개최



## 기후변화 따른 주요 재배작물 피해 예방·선제 대응 “농촌 살아남기 위해 냉철한 분석·대안 고민해야 할 것”

10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팜 교육장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농업의 미래와 농촌지도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함평군 주요 재배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특화작목 육성 정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세계각국의 대응전략 및 국내외와 해외의 스마트팜 기술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함평군의 장래를 위한 제안과 건의를 직접 질의하고 격의 없이 토론하는 등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 무한 경쟁속에서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냉철한 분석과 판단 아래 대안을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고향의 미래를 어루만지는 농촌지도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설원예와 과수분야에서 50여 농가가 스마트팜을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스마트팜 단지조성관련 8개 사업에 17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스마트팜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평=김광훈기자

## 무안군, 2024년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참여기업 모집

1인당 최대 800만원(기업 500만원, 신중년 300만원) 지원

무안군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024년도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장년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미취업 중장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채용된 중장년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2명으로, 1명당 최대 10개월간 채용기업에는 월간 50만 원의 고용

유지금을, 채용된 중장년에는 월간 3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참여 대상 기업은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현 상시 고용 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가능한 업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서는 최소 3개월 이내에 중장년을 선발해야 하며,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의 미취업

자로 기간 내 미채용 시 선발이 취소된다. 사업 신청은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일자리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서 미래성장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중년의 경력, 전문성을 활용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중장년층의 역할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계기로 만들겠다”며 “장기적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무안=기동취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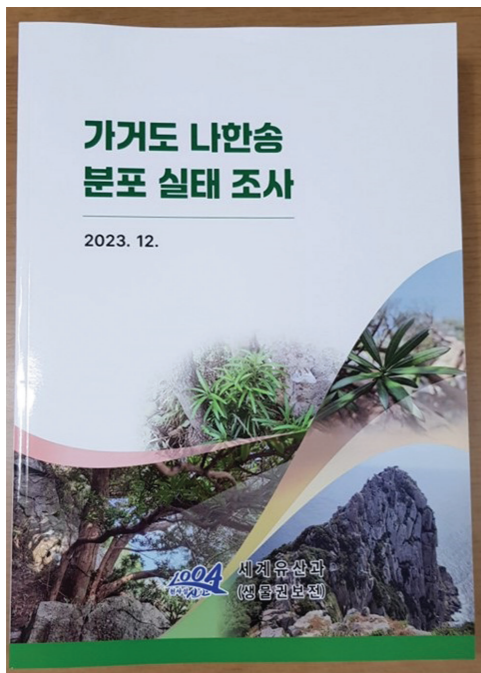
## 목포시 마을공동체 ‘위드미플로깅’ 새해 첫 활동

하도 인근 해변 쓰레기 줍기

목포시 마을공동체인 위드미플로깅이 지난 1일과 7일 새해맞이 쓰레기 줍기 활동에 나섰다. 마을공동체 위드미플로깅 회원들과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하도 인근 해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펼쳤다. 마을공동체 위드미플로깅의 이영주 대표는 “산책하며 쓰레기 줍는 활동 이후 고하도에서 보는 목포 앞바다는 매우 아름다워 큰 보람을 느낀다. 대부분 사업이 종료되고, 인력이 부족해져서 소홀해지기 쉬운 겨울이따라 이와 같은 활동이 꼭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을공동체 위드미플로깅은 목포시 전역에서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과 해양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마을공동체로 2022년과 2023년에 목포시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대상 마을공동체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신안 가거도 나한송 국가보호종 지정 추진

수령 274년 된 나한송 가거도 회룡산에 자생



신안군은 신안군에 분포하고 있는 나한송의 분포 실태에 대한 정밀 기초조사를 실행하여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가거도 나한송 분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23년에 신안군 일원에서 제한적으로 자생하는 나한송에 대한 중요한 종 생물학적 기초연구로 나한송의 생활사와 서식환경을 이해함으로써 불법 채취 및 서식지 파괴로 인한 대체 서식지 및 보호수 지정 추진 계획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안군에서는 가거도, 흑산도, 증도, 압해도 등 4개 지역의 5개 장소에서 나한송을 확인했다. 가거도 회룡산 나한송은 1988년 최초로 조사되었으며, 그 당시 목포대학교 김철수 교수는 이를 희귀 수종으로 국가 보호수종 지정을 언급했다.

연구 결과, 나한송 어린 개체는 31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성장 길이는 10cm에서 115cm까지 다양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나한송 종자 유입의 증거로, 적극적인 보전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거도 회룡산 능선 주변에서 자생하는 나한송의 수령이 최소 236년에서 최대 274년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는 국내 자연 상태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나한송으로, 약 250년에서 270년 사이의 수령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나한송은 단순한 생태적 가치를 넘어서 우리 역사의 소중한 증언자로 여겨진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현재 가거도 나한송의 보전과 연구는 단순히 자연유산의 보호를 넘어서,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그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보전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안군의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 영암군, 11개 읍·면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

영암군이 18일 영암군이정단 교육을 시작으로 1/23-2/22일 11개 읍·면에서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농업기술 전수로 농업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자리. 아울러 영암군은 올해 농정시책 설명·홍보, 건의 및 질의응답 시간도 동시에 가져

농업인의 이해를 돕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장단과 읍·면 교육에 이어 영암군 주요 작목 재배 실용교육도 이어진다. 대봉강은 2/20일 금정면에서, 무화과는 2/22일 삼호읍에서 각각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